

빅토리아시대시의 현실인식

—Maud와 “Jenny”를 중심으로—

유 명 숙

빅토리아시대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재와 기법에 있어서의 다양함이다.¹⁾ 이러한 다양함은 책의 보급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작가들이 과거의 문학을 의식하게 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실험정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또 한편, 이 시대 작가들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문학작품 속에 수용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형식의 부적절함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장르를 변형하거나 해체하려는 필연적인 노력이 소재와 기법의 다양함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런데 빅토리아시대문학의 소재와 기법의 다양함을 논의함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소설 뿐이다.²⁾ 빅토리아시대시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학유산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란할 정도의 다양함을 보이나, 시인의 혼란상을 포착하는 외에는 의의가 없는 시를 쓰거나 과거지향적인 시세계를 그리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평가는 타당한 듯하다. 빅토리아시대에는 신화상의 인물, 중세에서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는 인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과거지향적이라는 지적은 빅토리아시대가 과거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점검하기 전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닐 뿐더러³⁾, 빅토리아시대시에 현실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나온 이면에는 현실을 소재로 한 빅토리아시대시가 논의의 대상이 될만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한다. 즉 이러한 시들이 치열한 현실인식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등장인물의 개인적 고뇌나 혼란을, 나아가서 작가의 혼란상을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빅토리아시대시의 과거지향성 혹은 도피주의를 강조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약 일세기에 걸친 빅토리아시대 전반에 대한 반발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빅토리아시대의 특징은 확신에 차 떠들어 댔으면서도 자기모순에 빠져 있던 시대로, 시인들의 경우 현실을 제재로 할 경우에도 일관된 현실인식을 보이기 보다는 분열된 자의식을 표출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법상의 완성에 비해 통일된 전체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빅토리아시대 시인들이 시와 시의 기능에 대해 분열증적인 회의를 품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대중적 인기에도 영합했다고 하면

1) Walter E. Houghton and G. Robert Stange, *Victorian Poetry and Poetics*,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68) xv.

2) Ali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enres and Modes* (Cambridge: Harvard UP, 1982) 206.

3) 빅토리아시대가 과거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최근의 작업으로는 A. Dwight Culler, *The Victorian Mirror of the History* (New Haven: Yale UP, 1985) 참조.

빅토리아시대의 실패에 대한 비교적 설득력 있는 이론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론은 작품을 꼼꼼히 읽는 작업 보다는 모든 것을 작가내부의 문제로 귀결하여, “빅토리아적”이라고 흔히 경멸조로 말하는 시대의 증상의 예로 작품을 이용하는 오류를 범한다.⁴⁾ 물론 빅토리아시대가 여러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의 존재라든가, 사회의 진보라든가, 과거에 당연시하던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던 시대였던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빅토리아시대에는 자기모순에 빠진 인물이나 격앙된 감정을 절제없이 내뿜는 인물 등, 현실에 대해,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혼란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낭만주의시에 비교하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문학작품이 시대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리라는 가정은 문학작품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빅토리아시대가 낭만주의시의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낭만주의시의 주류가 시인이 직접 말하는 서정적인 시라면, 빅토리아시대 시는 대개의 경우 시인과의 거리가 전제된 극적인 시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기모순에 빠진 인물이나 격앙된 감정을 절제없이 내뿜는 인물에 대해 독자가 아이러니를 전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시대에 대한 오해는 대개 이러한 극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상태의 누구의 말이든 작가자신의 주관적 토대로 읽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Robert Browning의 dramatic monologue에서처럼 작가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는 그런대로 극적인 시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 거리가 적어도 처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특히 작가가 살던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현실문제를 다루는 시의 경우, 시인이 등장인물의 혼란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거의 전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이 드러내보이는 혼란상이 시 안에서 개연성이 있고, 그를 통해 시인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독자와 공유하고자하는 의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시대의 계관시인이며 그만큼 빅토리아시대에 대한 거부반응의 표적이 되어 온 Alfred Tennyson의 *Maud*(1855)는 이러한 오해의 대표적 예이다. 흔히 이 시는 개인적 불행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젊은이의 내면세계를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내는데는 성공하지만, 내용에 있어서의 모순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그가 시의 서두에서는 삶과 영국사회에 대해 지독히 열세적인데 우여곡절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영국의 Crimea 전쟁 참전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Crimea로 떠난다는 국수주의적 결론이 앞에서 나타나는 열세주의와 모순을 이룬다는 것이다.

*Maud*에 대한 작금의 비평은 일단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한다. 즉 이 젊은이가 열세주의에서 국수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그가 아직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만큼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⁵⁾ 이러한 모순의 근거를 Tennyson의 전기에서 추적한다. 젊은 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Rosa Baring이라는 처녀에게 실연을 당한 개인적인 분노와 계관시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감이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여 열세주의와 국수주의가

4) Cleanth Brooks,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Y.: Oxford UP, 1965) 239.

5) James R. Bennett, “*Maud*, Part III: *Maud’s Battle—Song*,” *Victorian Poetry* 18 (1980): 35-49; Marilyn J. Kurata, “‘A Juggle Born of the Brain’: A New Reading of *Maud*,” *Victorian Poetry* 21 (1983): 369-78.

공존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 시가 Tennyson의 경험에 근거한다고 해서 이 젊은이가 곧 Tennyson은 아니고, 그가 혼란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시의 혼란은 아니다. *Maud*를 Crimea 전쟁을 포함한 당대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로 읽으면 극적 전개상의 모순은 없다. 물론 시의 화자인 젊은이가 Crimea로 떠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혼란은 그의 개인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상기할 때 그가 영국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영국을 위해 참전하는 행동의 반전에도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파산한 부친의 자살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으나, 부친의 자살을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1850년대의 영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일환으로 비판한다. 그는 1850년대를 금전만능의 시대라는 아이러니칼한 뜻으로 “golden age”(30)라고 정의하고, PAX BRITANICA가 평화를 가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Peace sitting under her olive, and slurring the days gone by,
When the poor are hovell'd and hustled together, each sex, like swine,
When only the ledger lives, when only not all men lie;
Peace in her vineyard—yes!—but a company forges the wine.

And the vitriol madness flushes up the ruffian's head,
Till the filthy bylane rings to the yell of the trampled wife,
And chalk and alum and plaster are sold to the poor for bread,
And the spirit of murder works in the very means of life,

And sleep must lie down arm'd, for the villainous centre-bits
Grind on the wakeful ear in the hush of the moonless nights,

.....

Is it peace or war? better, war! (33-42, 46)

화자인 젊은이가 시의 끝에 가서 전쟁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렇게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상업주의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영국사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악한 주거환경에 따라 빈민계층에게 강요되는 짐승같은 생활, 그들의 유일한 도피처인 질 나쁜 술을 마시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파괴되는 틈을 타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 사회의 구조적 폭력의 한 사슬로서 빈민계층 남자의 아내에 대한 폭력행사, 항의할 힘이 없는 빈민계층을 상대로 한 불량식품 판매, 극심한 빈부차이가 야기하는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범죄율의 급증과 도덕의식의 마비, 등등 그의 영국사회 진단은 극단적인 면은 있지만 정확하다. 따라서 우울증 때문에 그가 영국사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고 하기 보다는 현실의 암담함과 처참함이 그의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수주의 보다는 이러한 현실인식이 이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다.

6) Ralph Rader, *Tennyson's Maud: The Biographical Genesi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3).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포자기상태로 Crimea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 Crimea 전쟁은 십자군전쟁 처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의명분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쟁은 유럽에서 가장 전제적인 군주인 짜아르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의 압제의 사슬 밑에 있던 Poland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자유를 안겨 줄 수 있는 기회였다. Marx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적어도 초기에는 Crimea전쟁이 유럽과 영국의 사회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다.⁷⁾ 이 시의 화자인 젊은이도 그렇게 믿고 떠난다. 물론 이 시에서 독자가 궁극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의 희생이 끝내 헛된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결론 때문에 내전에 비견할 만한 영국의 사회상황이 한 젊은이의 삶을 파괴하는 과정이 더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재를 도외시하고 시의 극적인 편성을 무시하는 관례 때문에 오해를 받는 또 다른 예가 지식층의 젊은이와 한 창녀의 만남을 제재로 매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D.G. Rossetti의 "Jenny"이다.

이 시가 얼마나 획기적인가는 매춘이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통해 문학의 제재로 다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진다. 물론 "fallen women"이라고 일컫는 여인군이 문학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Eve, Delilah, Cleopatra로 대표되는 이러한 요부들은 매춘과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남자의 타락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동인으로 제시될 따름이다. 직업적인 창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 등장할 뿐 매춘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 *Othello*의 Bianca는 Cassio를 쫓아다니는 그녀의 역할에 맞게 직업이 선정되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 감옥과 뒷골목을 무대로 하는 John Gay의 *The Beggar's Opera*에 등장하는 "women of the town"도 그 압도적인 수가 함축하는 바는 크지만 역시 매춘을 제재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이르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매춘에 까지 이르게 된다. 문학작품에서도 남자를 타락하게 하는 매체로서의 "fallen women"보다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fallen women," 그 대표적 예로 창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Mrs. Gaskell의 *Mary Barton*에서는 여공에서 창녀로 전락한 Esth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물론 그녀가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매춘에 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없지만, 가족과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국외자로서 창밖에서 기웃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매춘의 실상을 간명하게 드러내 준다.

"Jenny"는 창밖에서 서성거리는 창녀를 방으로 끌어들이며 맞대면 하는 시이다. 그러나 종래의 비평은 창녀와의 만남보다는 이 시의 화자인 젊은이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그의 감수성의 분열에 주목한다.⁸⁾ 실제로 우연히 만난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녀의 방으로 왔다가 그녀가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드는 바람에 창녀인 그녀의 처지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 급화 한 잎을 놓고 떠나는 이 젊은이는 여러 가지 혼란상을 드러낸다. 그는 학문에 정진하지도 쾌락을 쫓지도 못하고, Jenny를 동정하면서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파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다가 그녀의 더러움에 혐오를 내보이고, 매춘을 자본주의경제의 부산물로 보다가 영구불변한 인간(MAN—

7) Chris R. Vanden Bossche, "Realism versus Romance: The War of Cultural Codes in Tennyson's *Maud*," *Victorian Poetry* 24 (1986): 75.

8) Jules Paul Seigel, "Jenny: The Divided Sensibility of a Young and Thoughtful Man of the World,"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9 (1969): 685.

남성)의 육구의 어쩔 수 없는 도구로 보는 등 혼란상을 연출한다. 다시 말해 그는 부분적인 통찰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감상적으로 매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swald Doughty가 이 시를 매춘에 대해 빅토리아시대가 갖고 있던 “관습적인 도덕주의”로 채색된 실패작으로 평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⁹⁾

그러나 빅토리아시대가 매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던 시대였던 만큼 “관습적인 도덕주의”로 매춘에 대한 이 시대의 태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Rossetti가 “Jenny”를 완성한 1858년과 개작을 끝낸 1869년 사이에는 매춘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쟁점을 이루던 시대였다.

매춘에 대한 “관습적인 도덕주의”를 타파하는데 기여한 책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57년에 William Acton이라는 한 비뇨기과외과가 출판한 *Prostitution, Considered in its Moral, Social and Sanitary Aspects, in London and Other Large Cities: with Proposal for the Mitigation and Prevention of its Attendant Evils*이다. 이 책에서 Acton은 창녀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을 지적하고, 그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통계와 실례를 들어가며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창녀는 성병이나 알콜중독으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있으며, 그 추함을 가리기 위해 질게 화장을 하고, 얼마 안가 창녀의 신세로 죽는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창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당대의 종교적, 도덕적 틀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cton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수의 창녀들이 적어도 육체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출산을 해야 했던 중산층의 여자보다 더 건강할 수 있었다. 창녀들 중에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결혼을 해서 창녀생활을 그만두는 예도 적지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Rossetti가 그려내는 창녀 Jenny는 감상주의로 미화되었다기 보다는 관습적인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를 느끼고 창조해낸 새로운 창녀상이다. 시의 화자인 젊은이가 잠들어 있는 Jenny를 보고 느끼듯, 그녀가 보통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은 그 당시 사회개혁가들이 강조했듯이 창녀는 소모품인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주장이 쟁점을 이룬 이유는 Acton이 매춘의 “Attendant Evils”라고 돌려 표현한 성병의 예방을 위해 1864년 Contagious Disease Act라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도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빅토리아적”인데, 간단히 말하면 나폴레옹이 1802년 불란서와 점령지에 실시한 공창제도를 영국에 도입하여 창녀들에게 정기검진을 시키는 등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없이 이 법안은 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전제하고 있다. 경찰은 창녀라고 판단되는 여자는 불심검문하여 검진에 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고, 거부할 경우 강제노역형을 살도록 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수치를 당한 여염집 여자가 자살을 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처녀막을 파손당한 처녀의 입을 막으려다 실패하는 사례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Rossetti의 오랜 지기인 George Butler 목사의 부인이며 창녀들의 갱생을 도왔던 Josephine Butler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법안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남녀차별이요 인권유린이다. 이 법안은 창녀로 부터 남자의 건강을 나아가서 가정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인신보호법을 무시하고 창녀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남자의 건강이 창녀의 인권

9) Oswald Doughty, *Dante Gabriel Rossetti* (London: Longmans, 1975) 18.

에 우선하는 것은 창녀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부도덕한 여자이기 때문이고,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남자가 면책이 되는 이유는 남자의 성적 충동은 그 자신도 어쩔수 없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ontagious Disease Act의 폐지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 나온 국회보고서의 한 귀절은 이러한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There is no comparison to be made between prostitutes and the men who consort with them. With one sex the offence is committed as a matter of gain, with the other it is an irregular indulgence of a natural impulse.¹⁰⁾

창녀들이 왜 “material gain”을 필요로 하는지 자문해 보지 않는 영국신사들을 향해 Josephine Butler는 사회가 남녀관계에 강요하는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의 모순을 통박하면서, 매춘의 원인이 어떤 종류의 여자들의 근원적인 부도덕성에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¹¹⁾

이렇듯 Josephine Butler가 Contagious Disease Act를 계기로 매춘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창녀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는 점, 둘째는 매춘에 대한 책임은 창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으며, 그 책임의 근거는 도덕적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Rossetti와 Butler가의 친분으로 볼 때, 그가 Josephine Butler의 이러한 주장과 전혀 무관하게 “Jenny”를 썼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더우기 Rossetti가 Henry Mayhew의 *London Labour and the London Poor*와 같은 창녀들의 실상을 다룬 책자를 소유했고, 매춘에 대해 11편의 시와 8장의 그림을 남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관습적인 도덕주의”에 머물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물론 “Jenny”의 화자인 젊은이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젊은이가 곧 Rossetti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화자인 젊은이가 감상적이라면 어느 부분이 감상적이라는 것인지, 그의 감상적인 태도가 아이러니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시의 전체적 구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꼼꼼히 읽으면 Rossetti는 화자인 젊은이와의 거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가 선의를 갖고 문제에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매춘의 문제를 호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매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Rossetti의 이러한 의도는 Shakespeare의 *Merry Wives of Windsor*에서 따온 epigraph에 잘 나타난다. Mrs. Quickly의 말을 인용한 epigraph는 “제니의 경우에 화 있을 진저! 이런! 애야 그 이름도 입에 담지 말아라”(Vengeance of Jenny’s case! Fie on her! Never name her, child)는 내용인테 Jenny가 창녀라면(if she be a whore)라는 단서가 생략되어

10) Elizabeth Longford, *Eminent Victorian Women*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81) 121에서 재인용.

11) 이렇게 볼 때, Bernard Shaw가 *Mrs. Warren’s Profession*의 서문에서 그다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rostitution is caused, not by female depravity and male licentiousness, but simply by underpaying, undervaluing, and overworking women so shamefully that the poorest of them are forced to resort to prostitution to keep body and soul together.”

있다. Mrs. Quickly에 대해서 다소라도 알고 있는 독자가 이 epigraph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점은 그녀의 위선이다. 자신의 행실이 바른 것도 아닌데 Jenny가 창녀라면 이름도 거론하지 말라는 Mrs. Quickly의 말에 비해 Jenny의 이름을 수십번 부르는 젊은이는 적어도 그런 위선적인 도덕률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Jenny”는 이러한 “관습적인 도덕주의”를 비롯한 일종의 풍자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서 독자가 느끼는 것은 시의 화자인 젊은이가 매춘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표출하는 근본적인 혼란이다. 그렇다면 Mrs. Quickly가 등장하는 이유는 시의 화자인 젊은이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피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근본적인 유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매춘에 관한 한 15세기의 Mrs. Quickly나 19세기의 젊은이의 태도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Mrs. Quickly가 Jenny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 이면에는 창녀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사회적 음모가 숨어 있다. 젊은이는 Jenny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 Jenny를 숫자 0, 혹은 “nobody”라는 뜻으로 “cipher”(278)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음험하게 그러한 사회적 음모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Jenny”는 선의를 가진 개인이 사회현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젊은이는 Mrs. Quickly에 비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인물이지만 매춘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개인 차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Rossetti가 임의로 생략하고 있는 Mrs. Quickly의 단서 “if she be a whore”가 시사하는 바 크다. 얼핏 보기에 이 단서는 제반 정황으로 보아 Jenny가 창녀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시에서 궁극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창녀는 물건인가 인간인가, 잠든 창녀도 창녀인가, 한 번 창녀이면 영원히 창녀인가, 등등 정체성의 문제이다. 시의 화자인 젊은이는 잠든 Jenny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다른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창녀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작가는 그가 이러한 인식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이 귀절이 인용된 *Merry Wives of Windsor*의 4막 1장의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희극전체의 흐름과는 무관한, 전형적으로 희극적인 에피소드이다. 목사가 학생의 라틴어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옆에서 있던 Mrs. Quickly가 잘못 알아듣고 “Genitive case”를 “Jenny’s case,” 격변화인 “horum, harum, horum”을 whore로 오해하여 말참견하는 것이 epigraph에 인용되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Jenny는 이 희극의 등장인물도 아니고 등장인물이 아는 사람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녀는 “Genitive case”에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Jenny’s case”가 “Genitive case”에서 연원함은 매춘이 궁극적으로 돈에 의한 성의 소유임을 함축하고 있다. 젊은이가 계속 Jenny의 이름을 my나 mine이라는 소유격으로 속박함이 바로 그의 한계인 것이다.

물론 “Jenny”를 처음 접하는 독자가 epigraph에서 이 모든 의도를 단숨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 화자인 젊은이가 드러내 보이는 혼란이 작가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손쉬운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epigraph에 나타나는 Rossetti 의도는 Mrs. Quickly와 젊은이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지적함으로써 매춘에 대한 태도가 몇백년 전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창녀의 정체성 문제와 매춘의 경제

적 근거에 주안점을 뒀다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Mrs. Quickly의 위선을 비롯하여 만족하지 않고 젊은이의 혼란에서 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때 이 시를 올바르게 읽는 시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 화자인 젊은이와의 거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Rossetti는 서두에서 젊은이의 지나친 경박함은 아이러니를 강조한다.

Lazy laughing languid Jenny,
Fond of a kiss and fond of a guinea (1-2).

연속되는 /1/의 두운법이나, Jenny와 guinea의 각운, 나아가서 Jenny를 sex와 돈이 좋아서 창녀 노릇을 하는 여자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창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발언이다. Jenny를 짓밟힌 꽃이요, 더럽혀진 샘플로 묘사하는 것도 지나치게 구태의연해서 정색으로 말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어지는 질문도 가벼운 농담조이다.

Whose person or whose purse may be
The lodestar of your reverie? (20-21).

농담조로 말하고 있지만 그의 질문에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배어나온다. 그는 Jenny를 “person”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Jenny의 물화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물화를 가져온다. 그들의 관계는 현금거래로 성립되며, 그 자신도 “person”이라기 보다는 “purse”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epigraph에서 암시된 성의 소유 문제가 “Jenny”와 “guinea”의 각운, “person”과 “purse”의 대비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매춘을 당연시하는 관습적인 도덕주의의 편린을 보이지만 거기에 안주하지는 않는다. Rossetti가 그를 “a young and thoughtful man of the world” (*Collected Works*, I, 485)라고 묘사하는 것이 그의 이율배반적인 면을 분명히 한다. 그는 창녀와의 대면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man of the world”로, 도덕군자도 매춘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회개혁가도 아니다. 그는 즐기러 왔고 매춘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Jenny가 잠들어 버리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생각도 많고 사려도 깊은 젊은이이다. 그는 Jenny가 계약을 어기고 잠이 든 상황을 받아 들임으로써 그녀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인간이라는 인식에 접근한다.

Rossetti는 젊은이가 Jenny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행위가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을 분명히 한다. 시의 서두에서 “lazy, laughing, languid”라는 일련의 형용사로 Jenny를 묘사하면서 그녀가 성을 즐기고 돈이 좋아서 몸을 판다는 희롱조의 말이 그녀의 고뇌와 절망을 묘사하는 귀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For sometimes, were the truth confess'd,
You're thankful for a little rest,—
.....
And from the pale girl's dumb rebuke,

Whose ill-clad grace and toil-worn look
 Proclaim the strength that keeps her weak
 And other nights than yours bespeak;
 And from the wise unchildish elf,
 To schoolmate lesser than himself,
 Pointing you out, what thing you are:—
 Yes, from the daily jeer and jar,
 From shame and shame's outbraving too,
 Is rest not sometimes sweet to you? (67-68, 72-81)

헐벗고 피로에 찌든 여공의 무언의 비탄, 아이들의 손가락질, 자신이 “thing” (78)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심, 그에 따른 자포자기는 어느 정도 그녀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매춘을 상행위로 용인하는 사회가 여공에게 창녀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뱃가로 주고 육체적 고통과 결핍을 강요한다는 통찰까지도 그는 엿보인다.

젊은이는 Jenny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그녀에게 창녀가 아니었던 과거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실제로 그녀의 현실이 피로운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머리 속에 떠올리는 Jenny의 과거와 현재는 Jenny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소 도식적으로 느껴지는 시골생활의 순수함과 도시의 타락으로의 전이는 매춘을 시장경제와 결부하는 젊은이의 생각의 단면을 보이는 것이다.

젊은이는 1850~60년대 영국에서 매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인식의 변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그러나 선의를 갖고 매춘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가 결국은 “관습적인 도덕주의”에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한계의 근원은 Jenny를 인간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매우 피상적이기 때문이고, 그 점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가 Jenny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는 Jenny의 이름을 연상 불러대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156~67행에 가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Suppose I were to think aloud,
 —What if to her all this were said?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생각 속에서 말하고, Jenny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¹²⁾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특이한 언술행위의 상황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 시의 형식을 규정함에 있어 상당한 곤혹감을 느끼는 듯하다. 우선, “Jenny”는 빅토리아시대의 대표적인 장르인 dramatic monologue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선 화자와 청자라는 형식

12) Stephen J. Spector, “Love, Unity, and Desire in the Poetry of Rossetti,” *English Literary History*, 38 (1971): 435.

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화자인 젊은이는 소리내어 말을 하는게 아니고 청자인 Jenny의 경우에서 잠이 들어 있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Jenny”가 Coleridge의 “Frost at Midnight”과 상황이 유사한 점을 들어 conversation poem으로 정의 하기도 하고¹³⁾,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interior monologue라고 못박기도 한다.¹⁴⁾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대한 논의는 잠들어 있는 Jenny가 연출하는 극적상황, 나아가서 매춘이라는 제재와의 연관을 생각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잠든 Jenny는 빅토리아시대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의 적절한 상징일 뿐만¹⁵⁾ 아니라 이 시의 극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 만약 Jenny가 잠들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의 화자인 젊은이는 Jenny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일 없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테고 돈을 주고 떠났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Jenny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는 매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그의 생각이 언술행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Jenny의 잠은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Jenny가 잠들어 있는 상황은 “Frost at Midnight”에서 Coleridge의 아들 Hartley가 잠들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Frost at Midnight”에서는 Coleridge가 실제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만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Hartley를 향해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Jenny”에 있어서는, 만약 젊은이가 Jenny에게 실제로 말을 걸었다면 그녀는 잠들기 어려웠을 테고, 그의 말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내리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말을 입 밖으로 내어 Jenny를 깨우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단 때문에 그는 매춘의 원인과 실상에 대해 여러 가지 통찰을 엿보이고도 결국 “관습적인 도덕주의”로 후퇴하고 마는 것이다.

그는 매춘이 사고 파는 행위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파는 자 보다는 사는 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결국 그의 의식 안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Jenny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창녀의 미래에는 질병과 궁핍으로 강물에 몸을 던지는 길뿐이며, 영혼의 측면에서도 그녀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강한 회의를 나타낸다. 이 부분에 이르면 화자는 빅토리아시대가 여자에게 강요하던 성에 대한 허위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잠든 Jenny를 내려다 보면서 그는 그녀가 그의 사랑하는 사촌 Nell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 둘을 비교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체계의 전도로 그의 마음 속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다: “It makes a goblin of the sun” (206). 순결한 여인과 창녀를 극과 극으로 구분하는 허위의식에 사로 잡히는 순간 Jenny는 사라지고 대신 남자들의 영원불변하는 욕정에 대한 암호로 변한다.

Yet, Jenny, looking long at you,

13) Nicholas Shrimpton, “Rossetti’s Pornography,” *Essays in Criticism*, 29 (1979): 331.

14) Daniel A. Harris, “D.G. Rossetti’s ‘Jenny’: Sex, Money, and the Interior Monologue,” *Victorian Poetry* 22 (1984): 197.

15) Nina Auerbach, *Woman and the Demon: The Life of a Victorian Myth* (Cambridge: Harvard UP, 1982) 155.

The woman almost fades from view.
 A cipher of man's changeless sum
 Of lust, past, present, and to come,
 Is left. (276-80)

매춘이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산물로 개선이 가능한 제도라기 보다는 인간의 조건으로, 남자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의 부산물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난후 젊은이는 Jenny의 생각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그만 둔다. 시의 초반부에 "I wonder what you're thinking of." (58)로 시작하여 그녀의 내면세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Ah, Jenny, yes, we know your dreams." (364) 그는 그녀의 꿈의 내용까지 마음대로 정해 버린다. 특히 1인칭 단수로 서술해 오던 그가 갑자기 "we"를 차용함은 창녀 Jenny와 "관습적인 도덕주의"에 안주하는 "우리들"과의 거리를 더 분명하게 한다. 그가 Jenny의 금발에 금화를 놓는 것도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이는 자선이 아니라 Jenny의 내면세계를 능멸한 화대요, 매춘을 제도로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최후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여태껏 언어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젊은이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Jenny이다. Auerbach가 지적하듯이, 빅토리아시대문학에 나타나는 여인들은 무력한 것 같아도 결국 남성을 압도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Jenny도 예외는 아니다.¹⁶⁾ 특히 젊은이가 Jenny에게 kiss를 하고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젊은이의 무력함에 대한 아이러니가 분명해진다. 젊은이는 동화속의 왕자와는 달리 Jenny를 깨우는데 실패한다. Jenny의 잠은 온성을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뜨린 공주의 잠처럼 매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죽음과 같은 정체를 상징한다. 젊은이는 매춘이라는 잠자는 문제를 일깨우려다 실패하고 퇴장하는 것이다.

*Maud*와 "Jenny"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빅토리아시대시, 특히 현실문제를 다루는 시들은 등장인물의 혼란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작가 자신의 혼란으로 쉽게 결론져서는 안된다. *Maud*의 경우에서처럼 작품내에서 개연성이 있는 혼란이거나 "Jenny"의 경우에서처럼 외곽을 때리는 의도적인 혼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혼란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혼란 자체가 빅토리아시대 시인들의 현실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넘어갈 점은 빅토리아시대 시인들이 혼란을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적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빅토리아시대시를 꼼꼼하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16) Auerbach는 Jenny를 예로 들고 있지는 않는다.